

문화재 夜行 프로그램 마을미술 프로젝트 남도음식거리 조성

나주시 공모사업 올인

나주시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치사업 성격에 따라 전액 국비지원도 가능하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과소장과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사업별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업별 소관부처를 방문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지역 현안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인맥관리와 노하우 공유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등 직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마인드를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나주시가 최근 응모하거나 준비 중인 핵심 국비지원 사업은 역사도시사업단의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마을미술 프로젝트, 보건소의 '남도음식거리' 조성, 안전총

열악한 재정 극복 위해 사업별 소관 부처 방문 예산 유치 총력전 나서

과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이다.

역사도시사업단이 공모를 신청한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는 거점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 야간관람과 야간개방, 역사체험과 공연, 전통놀이와 음식 숙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나주시가 가진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전략도 담겨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2016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원도심 지역 마을의 역사·문화·생태·정서적인 특징이 분명한 일상공간을 예술로 새롭게 창조하는 사업으로, 폐산업시설과 연계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금성관 주변에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전남도에서 공모한 '1시·군 1음식의 거리 조성사업'에도 응모할 계획이다. 최근엔 '남도음식거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음식의 거리 조성사업은 오악국에서 대 한도인화나주시지부에 이르는 500m 거리에 남도음식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음식의 거리를 조성해 '나주 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토음식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주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안전제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해 지역을 위한 신규·핵심사업 예산을 최대한 받아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강인규 나주시장이 미국 현지마트를 방문해 진열된 나주배를 살펴보고 있다.

초중생 미국 어학연수 지역 늘리기로

강인규 시장 방미 성과

문화교류·농산물 수출 확대도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6박 8일 동안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나주시는 2일 "강인규 시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초중학생 어학연수 확대와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배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출 확대 모색, 일반인 문화 교류 확대 등 각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와 워싱턴주 자매도시인 웨네치시, 텍사스주 달라스 등을 방문했다.

강 시장은 또 웨네치 벨리 대학을 방문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나주 초·중학생 어학연수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의했고, 달라스시 부르크헤브 대학교는 어학연수 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7월중 교류협력 약정 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또 달라스시와 어바인시 등의 99마켓과 H마트 등을 방문, 나주배가 현지인들에게 맛과 가격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포장지 개선 등 유통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특히 나주 다시 출신의 최석호 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어바인시에서 오는 5월에 개최되는 한인문화축제에 나주시 부스설치를 요청받고, 자매도시인 웨네치시 역시 초중학생 외에도 일반인들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미국방문으로 21년동안 자매결연도시이자 2011년부터는 초·중학생 영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웨네치시 뿐만 아니라 달라스시 부르크헤브 대학에서도 연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학생연수도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비전문 관장 3년... 초라해진 천연염색문화관 운영 실적

수익 반토막·관람객 급감...시, 형식적 실태점검 지적도

나주천연염색문화관(재단)이 염색분야 비전문가인 간부 공무원 출신을 관장으로 영입한 이후 운영실적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가뜰이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수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관람객 수 등도 급감했다.

나주시는 특히 실적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감사 등을 형식적으로 해 '제 식구 보주기식' 관피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천연염색문화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천연염색 전문가인 전장모 관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관람객은 19만 2946명에 이른다. 주요사업 실적은 23회 31억 8300여만 원이며, 판매장 수익실적도 14억 748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시 42회, 교육 18회, 특히 15건 등의 성과를 냈다.

반면 나주시청 국장 출신인 현 이모 관장이 재임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면 관람객은 18만 9991명으로, 2955명이나 줄었다.

주요사업 실적도 22회 16억 6530여만 원으로, 지난 2010~2012년 대비 15억 1770 원이나 급감했다.

또 전시 33회, 교육 14회, 특히 7건 등 모든 실적이 동반 하락했으며, 판매장 수익도 13억 316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장 공모사업 유치실적도 극과 극이다. 전임 관장은 2010년부터 3년간 향토 산업육성사업 30억원,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연구사업 21억 6500만원 등 51억 6500 만원을 유치한 반면 현 이모 관장은 재임 시절 유치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천연염색문화재단의 비효율



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관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의 인건비로만 지난해 기준 3억 1800여만 원을 시민혈세로 지급했다. 특히 관장의 연봉은 6300여만 원에 이른다. 나주시는 지난해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다.

나주시청 내부에서도 관장의 적절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관장 모집 당시 재단 이사장을 겸하

고 있던 전임 나주시장이 전문가 채용 요건을 사실상 어기고, 공무원 퇴직자를 낙한 인사를 했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관장이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주시는 현 천연염색문화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입 관장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93세대 짓는다

회진·도래·용반지구 3곳

나주시가 입주자 주도형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낙후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등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나주 다도 도래지구 등 3개소에 총 37억 원을 투입해 각종 기반시설과 주택 93세대를 건립한다. 사업 대상지는 봉황 용반지구, 다도 도래지구, 다시 회진지구 21필지(9만 3129㎡)다.

신규 전원마을의 장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전용비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봉황 용반지구 조감도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등으로 주변 택지 시세에 비해 가격이 절반 정도 저렴하다.

나주시는 경제자립이 가능한 명품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도시민을 조합원으로 유치중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히 단열성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주) 조승학수정 ☎ 061-461-1800 H. 010-3631-0372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틈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전남지역 대리점 모집

- 목포권, 여수순천권역 -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